

서란 금성촌의 믿음직한 현대농업 리더 리학명



서란시 평안진 금성촌 촌민위원회 주임 리학명

서란은 경내에 송화강과 라립하 두 하천이 흘러나고 흑토지가 비옥하여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으로 '중국 생태입쌀의 고향'이라 불린다. 1982년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서란현(1992년 10월에 서란시로 변경)의 조선족 인구는 2만 8,356명으로 길림지역 조선족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평안진이 6,721명으로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향이었다. 이는 평안진이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지, 호란강의 풍부한 물자원 등 비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1924년 평안벌에 첫 비농사의 씨앗을 뿌리다

1924년, 평안벌에 터를 잡은 조선족 이주민 오주학, 박춘선 일가가 보(뚝)를 쌓고 물레방아를 돌리며 이 지역 최초의 비농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30여년후인 1956년 평안벌의 비농사는 헥타르당 수확량 1만근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금성촌당지부 서기 김옥만은 이 놀라운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모범모범으로 선정되었고 모택동과 주은래 등 지도자들의 접견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선족 농업전문호들의 활약, 그리고 평안벌의 오늘

오늘날 금성촌에는 수십헥타르, 심지어 백여헥타르의 논을 대규모로

급반아 운영하는 조선족 비농사 전문호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근년에는 금성촌의 토지 임대료가 무(천평방메터)당 1,200원을 기록하며 평안벌이 여전히 소중함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세기전, 오주학과 박춘선 일가가 시작한 작은 비농사는 오늘날 평안벌을 중국 생태입쌀의 핵심 산지로 성장



학명농장의 관광 코스를 따라

시켰다. 조선족 이주민들의 노력과 혁신이 만들어낸 이곳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닌 력사와 정신이 깃든 삶의 터전이다.

과거 황량했던 이 땅은 조선족 이주민들의 노력으로 문전옥답으로 변모했고 오늘날 서란의 벼 재배면적은 약 5만헥타르, 연간 생산량은 40만톤에 달한다. 현지 농업기업들은 친환경 생태 농법을 도입해 고품질 쌀 생산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리학명과 학명농장, 생태농업의 선구자

평안진 금성촌의 농업전문가 리학명(51세)은 123헥타르 규모의 고품질 생태 논을 운영하며 오리농법을 결합한 유기농 쌀 재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농장은 서란시농업투자발전유한회사로부터 '유기벼 원료기지'로 공식 지정받았다.

또한 학명농장은 전통농업을 넘어 관광농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논밭에 공중다리와 전망대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리학명은 학명농장의 대표이자 금성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서 마을의 토지 관리와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현

재 금성촌의 경작지는 550헥타르로 촌민위원회에서 90% 이상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리학명과 마룡환이 공동 운영하는 합작사는 123헥타르의 논을 관리하며 서란지역 조선족 농촌마을중 최대 규모의 농업생산을 이끌고 있다.

도시화 속에서도 꼭 지켜내야 할 농촌의 미래

올해초, 서란시농업농촌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금성촌김지공장이 생산에 교부될 준비를 마쳤다. 공장은 기존 금성촌 사무실 청사를 리모델링해 생산라인과 팽동창고를 갖추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설비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리학명 추주임은 "법인 설립 절차와 수출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수출 70%, 내수 3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식제로 리익을 배분해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성촌의 이런 변화는 리학명 추주임과 같은 든든한 리더와 세계대 농업인들의 도전이 만들어낸 희망적인 신호이며 그래서 앞으로의 금성촌의 밝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차영국기자

송화호 개강어 미식축제 4월 26일 개막!

4월 17일 성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소집한 2025년 길림시 송화호 개강어(开江鱼) 미식 시즌 및 봄여름 문화관광 행사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2025년 길림시 송화호 개강어미식 시즌이 4월 26일 성대히 개막될 예정이다. 행사는 5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지속된다.

송화호 개강어 미식 시즌은 길림시가 최근 몇년간 전력을 다해 구축한 불철 문화관광 브랜드 행사로서 점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바 봄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길림시의 문화관광 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화호는 맑은 수질로 미각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삼화일도'(三花一島)를 탄생시켰다. 특히 유명한 '가물치'(鳌花)는 중국의 4대 신선한 생선중 하나로 꼽힌다. 미식 시즌 동안 길림시는 송화호의 풍부한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송화호를 둘러싼 두개의 생선시식거리와 여섯개의 어시장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 지점을 장춘에까지 확장했다.

관광객들은 개강어, 탕수육(锅包肉), 인삼연(人参宴) 등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역내 13개의 다양한 미식거리도 둘러볼 수 있다. 5.1절 연휴 기간, 현지의 유명 요리사들이 현장에서 생선요리를 시연하게 되는데 10여가지의 특색 있는 생선요리들이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봄철과 여름철을 맞아 길림시는 다양한 행사와 경기를 준비했다. 5월에는 북산 민속 묘화와 경극 전시가 진행되고 6월에는 제3회 캠프 문화 시즌이 열리며 7월에는 '나의 여름방학은 송화강에서'를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8월에는 피서휴양 시즌을 맞아 만과송화호와 북대호스키장에서 여름 주제 계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길림시마라톤경기가 다가오는 5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

다. 단오절 연휴에는 국제롱추오청대회가 열리게 되며 여름까지 다양한 수상경기가 송화호에서 잇달아 펼쳐지게 된다.

길림시는 봄여름철 문화관광 행사를 중심으로 일련의 새로운 방식과 경로 및 정책을 도입했다. 오락 방식에서 길림시는 '송화강산책(松江漫步)', '청산산책'(青山漫步), '별밤투어(星夜漫步)' 등 세가지 계열 제품을 개발했으며 구역내 주요 문화박물관도 저녁 9시까지 무료로 연장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어약송강품선유(鱼跃松江品鲜游)', '화화세계촬영여행(花花世界旅拍游)', '길음유장무형문화유산여행(吉韵悠长非遗游)', '청량한 22°C 피서여행' 등 네가지 주제로 백여개의 고품질 여행 코스를 출시했다. 이 밖에 혜택 정책으로 '아동과 로인 무료, 반값 할인', '두완(二免) '무료빠스 전용 로선', '문화관광 헤미의 날', '주차 제한 시간 면제', '편의서비스' 등 시행된다.

여러 관광지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화호풍경구는 '물고기잡이의 새로운 재미(渔猎新趣)', 향로의 새로운 경지(航线新境), 경기의 새로운 장(赛事新篇)'이라는 세가지 주요 신제품을 선보이며 어업체험구역과 수상낚시구역을 설정하고 새로운 향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길림시문화관광그룹은 량만려행, 타이슬림려행(穿越之旅), 민속려행, 무송(雾凇)려행(길림 북산 사계절 크로스컨트리 스키장) 등 송화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유람선 결혼식과 현천령(玄天岭) 문화거리 특색 프로젝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소식공개회에서 길림시 부시장 류대율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길림시를 방문하여 개강어 요리를 맛보고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를 체험하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대중의 봄과 여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명준기자

교하, 사슴사육산업으로 향촌 진흥 다그쳐

지금은 꽃사슴이 털갈이를 하는 시절이다. 주희용은 매일 아침 일어나마자 가장 먼저 사슴우리를 확인한다. 4월 상순이 되면 번식용 사슴들이 점차 빨갈이를 시작해 새로운 록용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희용의 흥원사슴농장은 중국농업과학원에 순종 꽃사슴 유전자를 제공하는 교하시의 주요 기지중 하나로 새끼사슴의 수효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 농장은 교하위 구한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2인전 형식으로 그렸다.

이번 선정 작품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해 성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화강넷

"관문촌 촌민들은 사슴 사육으로 이미 부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만원호가 목표였지만 지금은 7자리, 심지어 8자리 저축통장을 가진 사람도 많아졌죠."라고 리영복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현재 관문촌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5,000마리가 넘으며 규모를 갖춘 농가만 저그만치 80여 가구에 달한다.

촌민 480여 기의 모두가 사슴을 키우고 있으며 올해는 사육 규모를 6,000마리까지 늘일 계획이다. 리영복만 해도 200마리를 추가로 키울 예정이다.

"사슴 200마리를 기르는 데만 연간 약 6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주변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옥수수, 사료 구매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신능가두관 사처 주임 량위화가 설명했다. 사슴 산업은 특색이 뚜렷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록용, 특용술, 사슴 태반 추출물, 사슴 힘줄, 사슴 심장, 사슴 고기 등 다양한 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들은 전국은 물론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현재 우림조선족마을과 심진진 등지에서 꽃사슴은 농민들에게 '황금 사슴'이 되었다. 교하시에서 사육하는 사슴은 2만마리에 달하는바 길림성 8대 사슴 사육 핵심지역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길림성 2025년 꽃사슴산업 발전 행동계획'이 발표되면서 교하시는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 '123'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들은 산과 들에 사슴의 울음소리를 되살리며 농촌이 산업 발전과 부강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 송화강넷

길림시군중예술관 작품 4편, 성 우수 군중예술 작품에 선정

최근, 길림시군중예술관에 따르면 이 예술관에서 제출한 4건의 작품이 2023년-2024년 길림성 우수 창작 군중예술 작품 목록에 선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길림성문화관광청은 2023년-2024년 전성 군중예술 창작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총 49편의 작품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길림시군중예술관이 제출한 음악부문 <대동강산

전하를 맞이하다>, <성애꽃 운치>, 연극부문 <호랑이 이발 뽑기>, 전통 예술부문 <대애무성>(大爱无声)이 포함됐다.

수상작 <대동강산 전하를 맞이하다>는 전통 경극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경가(京歌)로 북극 강성의 력사와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새로운 시대의 발전을 담았다. <대동강산 전하를 맞이하다>는 100여

회의 문화공연에 참여했으며 전국 우수 전통예술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에도 소개됐다. 관련 영상은 온라인 플랫폼홈에서 23만회 이상 조회됐다.

<성애꽃 운치>는 아름다운 선율로 안개와 눈꽃으로 뒤덮인 겨울 송화강의 장관을 표현했다.

<호랑이 이발 뽑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전한다.

<대애무성>은 제6회 전국 도덕모범상 수상자 왕생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흥수 속에서 이웃을 구한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2인전 형식으로 그렸다.

이번 선정 작품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해 성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화강넷

평안지역 최초 조선족 운영 쌀방아간 개장... 비농사·가공·판매 일체화



학명미업유한회사 가공공장 내부를 참관중인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회장단 일행

최근 서란시 평안진 학명농장이 순화미업을 인수하며 평안진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첫 쌀방아간이 문을 열었다. 이번 인수로 이 지역에 조선족 쌀방아간이 없던 력사가 마감되었다.

인수된 업체는 '학명미업유한회사'로 개칭중이며 부지면적 3만평방메터, 건물면적 8,000평방메터 규모로 연간 벼 가공 능력 1만톤을 자랑한다. 이미 올해 5,000톤의 벼 가공예약을 확보한 상태이다.

학명농장 농장주이자 학명미업 대표인 리학명은 "농장 운영과 가공업을 함께하겠다는 오랜 꿈이 이뤄졌다."며 기쁨을 전했다. / 차영국기자

5백만원이 넘는 큰 인수 비용이 있으나 은행의 신용대부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는 시설 점검과 함께 50만원을 투입해 소량의 가공설비를 도입중이며 하루 20톤 이상의 대량 가공부터 100건 단위의 소량 정미까지 가능하게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비농사, 가공, 판매의 완전한 일체화가 이루어지며 향후 서란지역 농업과 미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영국기자